

“판화는 정성 만큼 작품 나오는 정직한 예술”

10년만에 광주 개인전 김익모 조선대 교수

29~7월 7일까지 515갤러리 판화전

방학 이용 틈틈히 작업한 20여점 선포



▶ 'daybreak1621'



김익모(조선대 미술대학 현대조형미디어과) 교수는 판화와 회화를 넘나들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품에 담는다. 포도, 등나무 등 일상 생활에서 만난 사물을 보고 빠져들었던 사색을 판화에 회화 기법을 가미해 표현하기도 했다. 혹자는 “당신은 판화가요? 회화를 하는 사람이요?” 묻기도 하지만 김 교수는 그저 “나는 화가입니다”라고 답할 뿐이다.

김 교수에게 있어 판화와 회화든 내용을 더 충실히 묘사할 수 있다면 장르는 중요치 않다.

광주에서 10년만에 김 교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오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515갤러리(남구 양림동) 특별기획 판화전 ‘김익모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 김 교수는 순수 판화작품만 선보인다. ‘daybreak’, ‘landscape’, ‘rabyrinth’ 시리즈 등 지역 풍경과 정서를

초현실적으로 표현한 작품 20여점을 발표한다.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지난 몇년간 방학을 이용해 틈틈히 작업한 작품들이다.

김 교수는 약 30년 전 남도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구상 회화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 과감히 추상 기법을 시도했다. 이번 전시작들은 그동안 노력이 빛을 놓이는 기법들을 망라한 결과물들이다.

‘daybreak1621’은 다도해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풍경화에서 볼 수 있는 수평적 구도를 빌려와 선, 면, 색채로 바다 분위기를 묘사했다. 또 ‘daybreak1661’은 일몰을 형상화했다. 캔버스 밑부분은 푸른색으로 채우고 중간은 붉은색을 넣었다.

네모난 조형적 요소를 통해 광주 도시 모습을 표현한 작품(rabyrinth)도 있다. 이외에도 남도 섬, 안개, 비, 구름끼 날, 해질녘, 밤 도시 풍경을 독창적인 판화기법으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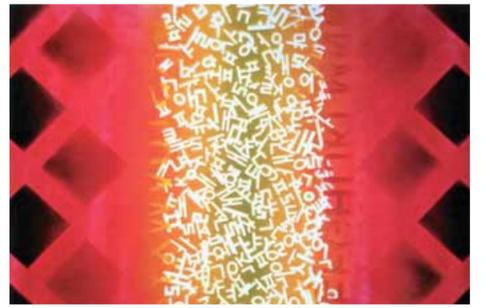
보인다.

“판화는 정성스레 깎은 만큼 좋은 작품이 찍혀 나오는 정직한 예술이다”고 말하는 김 교수는 복수 제작 보다는 판화 매력 자체를 보여주기에 작품 대부분 1~2장 내외를 찍어냈다.

김 교수는 “지역 후배들에게 열심하는 선배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번 전시를 신경 써서 준비했다”며 “관객들이 듣고 싶은 것도 있고 받고 싶은 이번 전시작품을 통해 서정적인 추상작품 매력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1회 한국현대판화공모전 우수상, 제2회 중국 국제판화비엔날레 문화건설부장관상, 제1회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미술, 한국현대판화가협회, 사에뵈꼬 현대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654-3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언어기호...윤병학 뉴욕 개인전



▶ '언어기호'

문자를 이용해 언어에 대한 생각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윤병학 작가가 미국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윤 작가가 30일부터 7월6일까지 미국 뉴욕 갤러리전에서 ‘언어기호’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그동안 작품을 통해 왜곡된 언어폭력과 비속어가 난무하는 현대사회를 비판한 윤 작가는 이번 전시에 ‘언어기호’ 시리즈 20여점을 출품한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미술 본고장인 미국에 광주 추상 미술을 알리고 세계 트렌드를 광주에 소개한다는 생각이다.

독창적인 조형미와 색채를 구사하는 윤 작가는 왜곡된 언어 사용과 부정적 현상들을 한글자모와 문자기호로 표현해 작품에 담았다.

‘언어기호’시리즈는 혼란한 사회를 이야기하며 자각과 반성을 함께 고민하자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가지런히 나열된 문자도형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작품은 붉은 색 등 강렬한 색채와 함께 불규칙적인 배치를 보여준다. 스티븐 실 기법(종이에 문양을 오려 낸 후 물감을 넣어 그림을 찍어 내는 기법)을 사용해 최대한 간결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윤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등에서 전시회를 열어 한국적 추상미를 선보였다. 한국남부현대미술협회 광주지회장, (사)에뵈꼬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2-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기록되지 않은 사물, 침잠의 시간’

채지운 개인전...7월 14일까지 갤러리 리체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채지운 작가가 갤러리 리체에서 개인전 ‘기록되지 않은 사물 : 침잠의 시간’을 7월14일까지 연다. 갤러리 리체가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청년작가지원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서 채 작가는 전통 옷칠공예와 나전기법을 현대화적으로 시도한 ‘몽요담’시리즈 중 ‘기록되지 않은 사물’ 연작을 선보인다. ‘기록되지 않은 사물’은 작가가 길거리에서 버려진 자개장통을 보고 떠올랐던 어릴적 추억을 표현한 작품이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지만 현재는 짐짝 또는 처리 곤란한 애타단지로 취급받는 광경에 주목했다. 사물의 권위와 시간 흐름에 따라 추락하는 모습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채씨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대학원



을 졸업하고 ‘몽요담’을 주제로 개인전을 8회 개최했다. 작품을 위해 철거가능사,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을 행사 연연 말고 ‘새판 짜기’ 나서야”

영화인 모임 ‘시민 모란’ 오늘 기자회견
광주시 조직위 제출 정산서류 보완 요구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국제영화제가 제 자리를 차지 위해서는 현 조직위원회 해체와 함께 완벽한 ‘새판 짜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영화인들과 문화예술계에서는 일정상 올해 행사를 열지 못하더라도 영화제를 운영할 제대로 된 조직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사를 치르는 데 급급한 ‘임기응변식 대응’은 향후 영화제 발전과 지역 영화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올해 예산 2억 7000만원을 확보한 광주시 역시 지역 영

화인들과 시민들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올해 행사 개최에 연연하지 않을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독립영화협회 등 지역 영화인들의 모임인 ‘광주국제영화제 문제 해결과 지역 영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모란 테이블’은 28일 오전 11시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파행을 일삼은 (사)광주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영화인들은 또 오랫동안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조직위원회 해체와 새로운 운영 주체 구성 등을 해결하지 않고 영화제 개최에 급급해 행사를 진행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정해진 기한 안에 지난해 사업비 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광주시로부터 3억원에 대한 환수 위기에 몰렸던 조직위원회는 서류를 갖고 있던 A씨가 지난 20일

서류를 제출하면서 일단 환수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광주시는 일부 집행예에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등 부실한 부분이 드러나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오는 7월 10일까지 다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정산 서류를 다시 검토한 후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영화제를 주관한 사람들이 야기한 문제인 만큼 다양한 영화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영화제 개최,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며 “영화제가 1년 사업이기 때문에 행여 올해 영화제가 열리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 되더라도 영화제에 대해 영화단체와 시민사회가 합의점을 찾았다면 내년 예산 확보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김미가기자 mekim@kwangju.co.kr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샷강 다슬기 OPEN!!

샷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손담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조
- 열독과 갈증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손담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다슬기 손담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 · 수제비 · 초무침
*다슬기 영양 들솥밥

샷강 다슬기 화순을 안양산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